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의 발생발전과 형상적특징

김철민

1. 서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계몽기문학을 포함한 근대문학의 발생발전과 시기구분, 형상적특징과 창작방법, 문학사적위치와 그 의의 같은 문제를 우리 나라 문학발전의 특수성과 결부시켜 과학성있게 해명하여야 한다.》(《김정일선집》증보판 제16권 172페이지)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이룩된 계몽주의문학의 성과와 경험을 분석일반화하는것은 지난 시기 인류가 창조한 정신문화적재부를 귀중히 여기고 풍부히 하며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미래의 사회적진보에 이바지하는데 의의가 있다. 세계의 우수한 문학유산에는 각이한 시대, 각이한 나라 인민들의 다양한 민족생활과 그들의 투쟁이 반영되어있으며 인류가 력사적으로 이룩한 창조적지혜와 재능, 슬기, 귀중한 경험과 교훈이 담겨져있다.

계몽주의문학은 동서방에서 다같이 문학의 발전과 근대사회력사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여러 나라에서의 계몽주의문학의 발생발전은 나라와 지역에 따라 일련의 차이를 가지고있으며 창작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이 문학발전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도 다르다.

유럽에서 계몽주의문학은 《자유》, 《평등》에 대한 리상을 제기하고 봉건사회로부터 근대사회에로의 이행을 촉진하였다. 이 문학은 낡은 봉건주의에서 벗어나 근대적발전으로 나아가려는 당시 사람들의 지향과 감정을 반영하고 중세문학의 환상적이고 미신적이며 미숙한 형상수법과 낡은 도식을 버리고 현실그대로의 진실성과 생동성을 보장하며 문학형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계몽주의문학은 지난 세기 인문주의 문학에 비하여 근대적풍격을 한층 더 높이였으며 19세기 소설문학을 포함하여 사실주의 문학의 발전에 밑천으로 되는 많은 귀중한 창작경험을 쌓았다.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은 유럽의 나라들과 달리 사회력사적조건이 다르고 문학적토대와 발생경위 그리고 창작자들의 구성과 준비정도 등에서의 차이로 하여 일련의 특징을 보여주고있다.

계몽주의문학연구방법을 놓고보아도 일련의 특징을 찾아볼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계몽기문학의 발생발전은 세계 여러 나라 계몽주의문학일반의 공통적인 특징과 함께 당시의 구체적인 사회력사적환경과 창작자들의 구성, 형상적수법의 차이등으로 하여 일련의 새로운 특징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지난 시기 계몽기문학에 대한 연구는 계몽기문학의 형성발전과 그것이 이룩해놓은 모든 성과와 경험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일반화로 되어있다.

이 논문에서는 계몽주의문학에 대한 일반적리해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의 사상미학적원칙을 분석하고 그것이 발생발전해온 과정을 사회력사적환경과의 련관속에서 연구하였다. 서술방법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을 영국계몽주의문학을 비롯하여 여러 서유럽나라 계몽주의문학의 사상적기초와 발생시기, 주제사상적내용 그리고 문학형식과 비교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고있다.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은 개화사상과 반침략애국사상을 기초로 하여 19세기말~20세기초에 발생하였다. 주제사상적내용에서는 낡고 부패한 봉건주의와 봉건적유습에 대한 폭로비판과 함께 나라의 독립자주에 대한 강렬한 지향을 보여주고 중세기적락후성에서 벗어나 근대적문명으로 나아가려는 지향이 적극 찬양되고있다. 인물형상에서 외세를 물리치는 싸움에 나선 의롭고 애국적인 인물들을 많이 형상하고 독립정신을 강하게 나타내고있다. 세태묘사가 많고 구체적이며 인물들을 생활현실과 밀착시켜 그려나가고있으므로 사실주의적성격이 매우 강하다.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에 대한 연구는 보편적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연구가 비단 조선이라는 지역적한계내에 머무는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경과한 계몽주의문학에 대한 깊고 폭넓고 풍부한 지식을 주는 것으로 하여 세계진보적문학유산의 풍부성과 다양성을 인식하는데 이바지하며 사람들의 문화정서생활을 풍부히 하는 사상정서적교양에 의의를 가지기때문이다. 또한 이 문학연구는 문학관계 연구자들뿐아니라 온 세상사람들에게 조선의 력사와 문화, 조선사람의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심, 고상한 문화정서, 지혜와 재능, 미풍량속을 더 잘 알게 함으로써 우리 인민에게는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며 세계 여러 나라 민족들과 나라들사이의 친선과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데도 의의가 있다.

2. 본 론

2.1. 우리 나라에서 계몽기문학의 발생발전

2.1.1.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의 사상적기초

계몽주의문학은 낡고 몽매한것을 깨우치고 보다 문명하고 근대적인 사회발전으로의 지향을 아름다운것으로 그리며 현실반영에서는 꿈과 같은 형상수법이 아니라 현실을 그 자체의 모습으로 들여다 볼수 있는 수법을 창조하는데로 지향하였다.

사상적립장과 사회적리상은 문예사조의 연구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진다. 창작자들의 세계관에 의하여 사회현실이 이렇게 혹은 저렇게 반영되며 형상창조의 원칙과 수법도 달라진다.

유럽에서 계몽주의문학은 17~18세기 영국, 프랑스, 도이칠란드 그리고 뒤이어 로씨야에서 발생한 반봉건적, 반그리스도교적인 계몽사상을 세계관적기초로 하고있다.

프랑스에서 계몽주의문학은 다가오는 부르쥬아혁명을 앞두고 오랜 세월 봉건주의와 신분적에속해 짓눌리고 무지와 몽매로 하여 자기의 불행한 사회적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상정신적으로 준비시켜 근대사회발전을 위한 운동을 추진시켜나갔다.

이미 부르쥬아혁명이 수행된 영국에서 계몽주의문학은 불철저하게 진행된 부르쥬아

혁명이 남겨놓은 봉건적잔재에 대한 비판과 새롭게 자라나는 자본주의사회악에 대한 비판에 리용되었다.

유럽의 계몽주의자들은 사회현상을 대하는데서 《리성》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제기하고 사회적예속과 온갖 사회악을 낳는 낡고 부패한 정신도덕에서 벗어난 《자연적상태》의 인간과 그의 생활을 리상화하였다.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의 사상적기초에 놓여있는것은 주로 개화사상이다.

개화사상은 나라의 자본주의적경제 및 사회관계발전의 미숙성으로 하여 부르조아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조아적사회층의 리익을 자각한 오경석(1831-1879), 류홍기 등 중인출신인물들에 의하여 19세기 50년대부터 싹트기 시작하였으며 19세기 70~80년대에 이르러 김옥균(1851-1894)에 의하여 더욱 발전되고 일정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개화사상은 봉건전제군주제도를 뒤집어엎고 부르조아적정치제도를 세우며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나라를 자본주의적으로 발전시킬것을 지향한 부르조아개혁사상이다.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의 근저에 놓인 개화사상은 당시 조선이 처한 구체적인 사회력사적현실의 요구로 하여 반침략애국사상과 밀접히 결합된것이 특징이다.

19세기말~20세기초에 우리 나라에서는 외세의 침략과 예속에 의하여 나라와 민족의 존엄이 무참히 유린되고있었으며 따라서 나라와 민족의 불행한 운명을 구원하려는 반침략애국투쟁이 벌어지고있었다.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단계로 넘어가면서 식민지분할을 위해 미쳐날뛰던 제국주의렬강들은 뒤떨어진 동방에 눈독을 들이게 되었고 조선에 대한 침략책동을 로골적으로 감행하였다.

우리 나라에는 외래침략자들의 마수가 뻗치기 시작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이 1875년에 도발한 《운양》호사건과 불평등적인 《강화도조약》의 강압체결을 실례로 들수 있다. 특히 일제의 1905년 날강도적인 《을사5조약》의 날조와 대규모적인 무력침공으로 하여 우리 나라는 자본주의발전의 정상적인 길을 걷지 못하고 식민지반봉건사회로 전락되게 되었으며 조선인민은 나라의 자주권을 무참히 침해당하고 예속되었다.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외래침략자들을 쳐물리치고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인민들의 대중적투쟁이 세차게 벌어졌다. 가장 대표적인것은 1894년에 일어난 갑오농민전쟁과 그 이후의 반일의병운동을 들수 있다. 이리하여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과 하나로 결합되고 나라의 근대적발전을 위한 투쟁은 반침략애국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의 많은 대표작가들이 다름아닌 의병장들과 애국렬사들이며 그 밖에 외래침략자들에게 유린당하는 민족의 위기를 타개하고 나라의 근대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치문화운동을 활발히 벌린 애국적지식인들이라는 사실은 이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있다.

사회의 근대적발전을 위한 개화사상과 외래침략자들의 예속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려는 반침략애국사상은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의 사상적기초로 되었으며 계몽기문학의 형성발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2.1.2.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의 발생시기와 발전단계

우리 나라에서 계몽기문학은 19세기말~20세기초 일제의 조선강점을 전후한 시기 애국적지식인들이 벌린 애국문화운동을 직접적인 계기로 하여 발생하였다.

애국문화운동은 일제의 조선침략의 강화로 말미아마 처음부터 반일적성격을 농후하게 띠고 전개되었으며 1905년 11월이후 일제가 날조한 《을사5조약》을 반대하는 전 민족적항거의 거센 불길속에서 새로운 양양의 길에 들어섰다.

이 시기에 이르러 애국문화운동자들은 나라가 일제에 의하여 강점된 조건에서 국권회복을 전면에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한 기본방도를 《내수의학》(안으로는 국력을 충실히 하고 밖으로는 선진국가에서 배우는것)과 《교육 및 산업의 진흥》에 의한 《자강》에서 찾았다. 그들은 단체들을 조직하고 교육운동, 출판활동, 국문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투쟁을 통하여 대중을 계몽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리었다.

여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교육운동이다. 애국문화운동자들은 민족의 성쇠와 국가의 존망도, 사람의 생존도 다 교육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나라의 독립자주와 근대적발전을 위하여 동포들의 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력설하였으며 교육사업에 모든 력량을 기울였다.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의 대표적작가들은 박은식(1860-1926), 리해조(1869-1927), 김택영(1850-1927), 장지연(1864-1921), 신채호(1880-1936) 등이다.

박은식은 소설과 연극의 사회교양적의의와 가치를 계몽주의적관점에서 정당하게 리해하고 강조하였으며 김택영과 장지연은 자기들의 시론과 시평들에서 문학의 사회정치적기능과 민족적독자성, 시의 사상적내용과 예술적형식의 결합 및 사상적내용의 선차적의의를 주장하였다.

신채호는 자기의 문예론설들과 평론들에서 인민들에 대한 애국주의교양과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문학이 노는 기능과 역할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한편 리해조는 소설 《화의혈》(1912)의 서문에서 일반적으로 소설형태에서 생활반영의 다양성을 지적하고 자기의 소설이 《재주가 민첩하지 못하고 문장이 황홀하지는 못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실생활을 한구절의 허언량설도 없이 하나하나의 행동과 상태를 눈으로 그 사람을 보고 귀로 그 사정을 듣는듯 하여 선악간 죽히 밝은 거울이 될만》하다고 썼다.

이것은 인간과 생활을 사실그대로, 객관적으로 진실하게 그리는 소설의 사실주의적묘사원칙을 옳게 리해하고 강조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은 19세기말~20세기초에 걸쳐 크게 두 단계에 걸쳐 발전하였다.

첫 단계는 갑오농민전쟁을 전후한 시기부터 일제의 강도적인 《을사5조약》의 날조와 무력강점시기까지 즉 1890년대 중엽부터 1905년에 해당한다.

계몽기문학은 주로 력사전기들과 우화, 정론 같은 산문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창작되었다.

애국명장들의 투쟁내용을 서술한 력사전기들로서는 《리충무공전》, 《양만춘전》 등을 들수 있다. 이 작품들은 애국명장들의 투쟁활동과 업적을 통하여 인민들에게 반침략애국사상을 고취하고 그들을 나라의 독립자주를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하였다.

또한 안국선의 우화 《교활한 원숭이》, 《호랑이를 등에 업은 여우》 등에서는 일제의 강도적본성과 매국역적들의 반역행위를 폭로규탄하고 신교육과 신문화의 중요성을 형상

적으로 강조하였다.

반침략반봉건사상과 계몽사상을 선전하는 애국적인 정론들로서는 박은식의 《교육이 불흥이면 생존이 부득》, 《구습개량론》, 신채호의 《애국자》, 《력과 애국심의 관계》,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 박성흠의 《애국론》, 주시경의 《국어와 국문의 필요》 등을 들 수 있다.

정론들은 모두 《독립자주》, 《민권옹호》, 《산업발전》, 《교육의 진흥》으로 국권을 충실히 할것을 주장하였고 문명개화를 이룩할데 대한 사상을 고취하였다.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발전의 둘째 단계는 1905년이후부터 1910년대초까지로 볼수 있다.

이 시기 새로운 소설과 시형태인 신소설과 창가가 새롭게 탐구개척되고 적극적으로 창작되었다. 이것은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신소설이라는 말은 고전소설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소설이라는 의미로서 계몽기에 널리 쓰여졌다. 신소설이라는 이름이 정식 쓰여지기 시작한것은 1907년에 《만세보》신문에 신소설이라는 표제를 달고 소설 《혈의 루》(1906, 리인직)를 연재발표한 때로부터이다.

신소설은 그 내용에서 현실생활의 여러 측면을 소재로 하면서 《내수외학》, 《독립자주》, 《민권옹호》, 《문명개화》 등의 근대적인 개화사상을 기본으로 취급하였다. 또한 구성형식에서 중세소설의 고전감래식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현실적인 인물과 사건들에 기초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나갔으며 언어문체에서는 언문일치의 방향으로 나갔다.

신소설의 대표적인 작가는 리해조(1869-1927)이다. 그는 신소설의 개척자, 대표적인 작가로서 소설 《자유종》(1910), 《빈상설》(가난에 서리가 겹치다)(1908), 《구마검》(마술에서 벗어나게 하는 검)(1908), 《모란병》(1911), 《화의 혈》(꽃에 떨어진 피)(1911), 《비파성》(비파소리)(1912) 등 30여편의 소설들을 창작하였다. 그의 소설들은 소재와 등장인물들의 설정, 구성조직이 매우 다양하고 형상수법을 다채롭게 활용하고있는것으로 특징적인데 그 주제사상적내용은 독립자주와 문명개화에 대한것으로 일관되어있다. 그는 많은 신소설들과 함께 고전소설을 신소설형식으로 재창조한 《옥중화》(감옥에 핀 꽃), 《강상련》(강우에 핀련꽃), 《연의 각》(제비다리) 등을 내놓았으며 외국소설 《철세계》를 번역소개하여 사람들에게 문명개화의 사상을 고취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당시 신소설을 쓴 작가들중에는 안국선, 김교제, 최찬식, 리상협 등도 있었다. 안국선(1854-1928)은 우화소설 《금수회의록》, 《공제회》 등을 창작하였고 최찬식(1881-1951)은 단편소설 《추월색》(1912), 《안의 성》(1912), 정치소설 《설중매》를 창작하였다. 김교제는 《현미경》, 《비행선》, 《목단화》와 같은 소설들을 창작하였다.

이 소설들은 봉건사회의 부패성과 모순을 폭로하고 나라의 독립과 문명개화를 이룩해나갈데 대한 사상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물론 신소설은 작가들의 계급적 및 세계관적제한성으로 하여 봉건사회제도에 대한 비판이 철저하지 못하고 반일내용이 뚜렷하지 못하며 사회변혁을 위한 과학적방도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일부는 반봉건투쟁을 부정적으로 대하는것과 같은 심중한 결함들도 나타냈다.

그러나 신소설은 주제사상적내용의 적극성과 생활반영의 진실성, 사실주의적묘사와 언문일치를 보장한 혁신성으로 하여 당시 인민들에게 근대개화사상을 고취하는데서 긍정적인역할을 하였으며 계몽기문학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창가는 신소설과 함께 계몽기문학의 발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창가가 애국문화계몽운동사상을 기본내용으로 한 운문시가형식으로서 처음으로 창작되기 시작한것은 1890년대이다. 당시의 《독립신문》 1896년 7월에 리용우가 창작한 《애국가》와 리중원이 창작한 《동심가》가 게재되었다.

창가는 애국문화계몽운동의 수단의 하나로 출현하여 처음에는 학생청년들속에서 불리우다가 점차 광범한 군중속에서 널리 불리워졌다. 당시 창작된 창가들가운데는 여러가지 내용들이 반영되어있었으나 주되는 내용은 나라의 《독립자주》와 《민권옹호》 및 《문명개화》의 사상이었다.

이 창가들은 나라잃은 민족의 슬픔과 침략자들에 대한 증오심, 나라의 독립과 자유, 문명개화를 하루빨리 이룩하려는 열망 등 인민대중의 사상감정과 시대적지향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시대적요구에 맞게 새롭고 다양한 시형식과 표현수법들을 적극 탐구도입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애국독립사상과 문명개화사상을 고취하고 사실주의적인 민족시가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이처럼 19세기말~20세기초 조선문학에서는 당대의 사회력사적현실과 미학적요구를 반영하여 반침략애국주의사상과 독립자주, 문명개화의 의지를 구현한 력사전기소설과 우화, 신소설과 창가 등 여러가지 형태의 작품들이 활발히 창작되었다.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은 1910년대초에 이르러 나라의 자본주의적발전을 완전히 가로막고 식민지통치를 영구화하려는 일제의 악랄한 침략책동으로 하여 조락되었으며 그 이후 작가들은 일제의 총칼이 살판치고 봉건적질곡과 구속에서 헤매이는 암담한 사회현실을 폭로비판하기 위한 비판적사실주의창작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2.2.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의 주제사상적내용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작품에서 주제사상적내용은 다양하다고 볼수 있다. 작품들은 독립과 개화리념의 해설과 선진문명에 대한 섭취로, 어떤 작품에서는 부패한 정치에 대한 비판, 봉건적신분제도에 대한 부정과 개혁의지로, 어떤 작품에서는 낡은 인습과 녀성인권을 유린하는 사회적악덕에 대한 비판으로 표현되었다.

실례로 신소설 《자유종》과 《설중매》는 봉건적신분제도에 대한 부정, 인간평등에 대한 지향을 기본주제사상적내용으로 하고있다면 신소설 《목단화》, 《모란병》, 《구마검》은 선진문명의 섭취를 주장하면서 문명개화의 리념을 구현하고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계몽기문학은 나라의 구체적인 사회현실적요구로부터 무엇보다도 반침략애국적인 《독립자주》의 리념을 주요주제사상적내용의 하나로 취급하고있다.

계몽기학자들이 《내수외학》의 구호를 들고 지식의 보급, 리성의 계발을 급선무로 내세운것도 다 외래침략을 물리치고 나라의 독립자주와 근대자본주의발전을 위한것이였다.

이것은 우선 반일애국주제의 의병가요들과 애국적시인들의 시문학작품들에서 찾아볼수 있다.

의병장 류린석(1842-1915)은 시 《양포》, 《강화도 양요》에서 렬강들의 침략을 규탄하고 의병들의 용감한 투쟁을 찬양하였으며 수많은 격문과 함께 시 《세상을 걱정하여》, 《망국노를 저주한다》, 《5적과 7적을 저주한다》, 《애국렬사를 추모하여》 등을 창작하여 열

렬한 조국애, 일제와 매국역적들에 대한 증오심을 표현하였다.

의병장 최익현의 시 《이 몸을 일으켜》, 전해산의 시 《옥중에서 읊노라》, 반일렬사 안중근의 시 《만세가》, 황현(1855-1910)의 시 《무산땅의 의병장 정시현의 죽음을 슬퍼하여》 등에서는 나라잃은 통분한 심정과 열렬한 조국애, 원수들에 대한 증오심과 분노의 감정, 나라의 독립에 대한 지향과 투쟁정신을 진실하고 뜨겁게 노래하였다.

이 시기에 창작된 의병장들과 애국적인 시인들의 시작품들은 시대적 및 계급적제한성이 있었으나 높은 애국적열정과 민족적기개를 양양된 정서로 힘있게 노래한것으로 하여 계몽기문학의 사실주의적성격을 뚜렷이 하였으며 인민들을 반침략애국정신으로 교양하고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은 주제사상적내용에서 《문명개화》에 커다란 주목을 돌리고있다.

신소설 《현미경》, 《원앙도》는 식민지사회의 부패한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개혁적의의를 표현하는것으로 문명개화의 리념을 구현하였고 《비파성》이나 《구마점》은 미신의 허황성과 해독성을 폭로하고 중세기적몽매에서 벗어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신소설 《귀의성》, 《모란병》, 《추월색》은 낮은 인습과 녀성들의 인권을 가혹하게 유린하는 사회적악덕에 대한 예리한 비판으로 문명개화의 리념을 구현하였다.

18세기 유럽에서 계몽주의문학은 여러 나라들에서 부르조아혁명이 다가오고있던 시기에 그 사상적준비로서 진행된것만큼 반봉건적, 반그리스도교적인 리념을 주요주제사상으로 제기하였다.

실레로 프랑스의 보마르셰(1732-1799)의 희곡 《셰빌랴의 리발사》(1775)와 《피카로의 결혼》(1781)은 평민출신의 주인공들의 형상을 통하여 귀족계층의 기생충적인 생활과 무능력을 조소하고 귀족에 비한 평민의 정신도덕적우월성을 보여주었다. 루쏘(1712-1778)의 소설 《신엘로이즈》(1761)는 봉건적편견에 의하여 희생당하는 주인공들의 운명을 통하여 봉건률리도덕과 신분적차별을 반대하고있다.

도이칠란드의 실레르(1759-1805)의 희곡 《도적들》(1781)에는 《질풍노도》시기 봉건령주들과 승려들의 전제주의적폭행과 위선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반항투쟁기운이 반영되어있다. 피테(1749-1832)의 극시 《파우스트》(1808-1832)에서는 작가의 계몽주의적리상을 구현하고있는 주인공 파우스트가 인간생활의 의의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하여 걷는 편력과정을 기본줄거리로 하면서 인간생활의 의의는 진리를 탐구하는데 있으며 인간은 반드시 생활의 진리를 탐구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미 17세기에 부르조아혁명이 수행되고 자본주의제도가 발생한 조건에서 영국계몽주의는 혁명의 결과를 공고히 하고 남아있는 봉건적잔재들을 청산하는 문제를 과제로 내세웠다. 이로부터 영국계몽주의문학은 소설 《로빈슨 크루소우》, 《갈리버려행기》, 《파밀라》, 《고아 톰 존즈에 대한 이야기》, 《로더리크 랜덤의 모험》 등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주제사상적내용에서 봉건적잔재에 대한 폭로비판과 새로 수립된 부르조아제도에 대한 지지와 긍정, 새롭게 자라나던 자본주의사회악에 대한 비판에 작가들의 많은 주의가 돌려지고있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은 그 주제사상적내용에서 《문명개화》의 리념이 반침략적인 《독립자주》의 리념과 결부된것이 특징적이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2.3.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의 형상적특징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의 형상적특징은 무엇보다먼저 《자연인》리상에 기초하여 이상적인 인물들을 기본으로 설정한 유럽계몽주의문학과는 달리 현실의 평범한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형상한것이다.

형상성은 인간과 그 생활을 현실에 있는 그대로의 구체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그려내는 문학예술의 특성을 표현하는 미학적개념이다. 형상성은 사회적의식의 다른 형태들과 구별되는 문학예술에 고유한 속성이며 문학예술의 생명력과 가치를 평가하는 본질적인 척도이다.

형상성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문학예술은 사람들을 미학정서적으로 감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형상성을 높이는것은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여기서 또한 중요한것은 인간과 그 생활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그리는것이다.

프랑스의 몽테스큐(1689-1755), 디드로(1713-1784)와 루쏘(1712-1778), 도이칠란드의 피테(1749-1832)와 셸레르(1759-1805) 등 유럽계몽주의문학의 대표자들은 한결같이 문학작품들에 《자연인》리상에 부합되는 내용들을 반영할데 대한 미학리념을 제기하고 구현하였다. 그들은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구호밑에 문학예술에서 《자연인》리상을 제시하고 그와 관련한 일련의 리론을 내놓았으며 그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예술형식과 내용을 반대하였다.

몽테스큐는 소설 《페르샤인의 편지》(1721)에서 프랑스에 온 페르샤사람들의 편지를 통하여 당시 프랑스봉건전제주의제도를 대담하게 부정하고 새로운 국가정치제도인 립헌군주제를 실시할데 대한 계몽주의적리상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디드로의 소설 《수녀》에서는 금욕주의에 의하여 《자연적인간》의 모든 아름다움과 권리가 짓밟히는 녀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교회의 반동적죄행을 폭로하였다.

루쏘의 소설 《에밀》에서 에밀의 양육을 맡은 교사가 조물주의 손에서 태어날 때에는 누구나 선량했던 사람이 타락하는것은 이 세상의 습관과 교육법이 글러먹은데 있다고 보고 사람을 《자연인》으로 키울데 대한 리상밑에 25년동안 에밀을 외적인 환경(사회와 가정)이나 습관과 편견의 나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아이에게 있는 자연적인 싹을 될수록 조장시키는데 기본을 두고 교육을 진행하는것도 같은 실례이다.

영국의 대니얼 디포우(1660-1731)의 소설 《로빈슨 크루소우》(1719)와 죠너선 스위프트(1667-1745)의 풍자소설 《갈리버려행기》(1726)도 같은 실례로 된다. 《로빈슨 크루소우》의 주인공 크루소우가 28년동안이나 사회와 동떨어진 무인도에서 겪는 생활을 위주로 하여 그린것이라든가 《갈리버려행기》에서 《작은 사람들의 나라》, 《큰 사람들의 나라》, 《날아 다니는 섬》, 《말들의 나라》 등 4편으로 구성하고 내용을 전개한것은 다 계몽주의작가들의 《자연인》리상에 기초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에서는 주인공들로서 평민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자연인》으로 형상하던 유럽계몽주의와는 달리 당시 조선의 구체적인 사회력사적현실의 가장

절박한 사회정치적문제인 독립자주에 대한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인물들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생활모습으로 그에 대한 해답을 줄수 있게 성격형상을 창조하는데로 지향하였다.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에서는 우선 반일의병, 반일애국렬사 등의 인물들을 설정하고 그들이 지닌 반침략애국사상과 민족적독립사상을 진실하게 형상하였다.

의병가요들인 《의병대가》, 민요 《군바바》에서 원쑤치러 나아가는 의병대의 충천한 기세와 투지, 전투모습과 용맹,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경멸의 감정은 당시 사람들에게 독립자주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데 대한 열렬한 호소를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잘 표현하였다.

구전설화작품인 《평산의병설화》, 《백명굴전설》 등은 일제침략자들로부터 자기의 고향마을과 나라를 지켜싸우다가 장렬한 최후를 마친 평산의병들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 불굴의 애국적기개를 통하여 사람들을 반침략애국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이밖에도 반일의병장들이 창작한 《세상을 걱정하여》(류린석), 《이 몸을 일으켜》(최익현), 《옥중에서 읊노라》(전해산)와 반일렬사 안중근의 시 《만세가》 등은 서정적주인공—반일의병장들과 반일애국렬사들의 가슴속에 끓어넘치는 원쑤격멸의 투지와 애국적절개, 나라의 독립에 대한 불타는 열망을 진실하고 뜨겁게 형상하였다.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에서는 또한 애국적인 개혁활동가들의 형상창조와 함께 문명개화사상에 열렬히 공명하는 여성들의 형상도 창조하였다.

《현미경》의 리협관, 《치악산》의 리판서, 《홍도화》의 김창서와 같은 개화사상을 가진 혁신과 상층관료들과 《몽조》의 한대홍, 박주사와 같은 애국적인 개혁활동가들을 실례로 들수 있다. 또한 《설중매》의 리태순, 《모란병》의 황수복, 《치악산》의 홍철식도 근대문명에 대한 지향을 체현한 젊은 개화인물들의 형상이다.

신소설 《목단화》의 리정숙, 《모란병》의 현금선, 《설중매》의 장매선은 신교육을 받은 개화여성들이며 《자유종》의 신설현, 《몽조》의 정부인 등은 문명개화사상에 열렬히 공명하는 여성들의 형상이다.

이처럼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에서는 대체로 긍정인물관계설정에서 긍정인물을 개화의식의 소유자로, 부정인물을 완고한 봉건적수구사상의 체현자로 만듦으로써 날로 허물어져가는 봉건사회의 부패상에 대한 비판과 함께 낡은 사회의 몰락과정이 사실주의적으로 반영되어있다. 나라의 독립과 《문명개화》, 《민권옹호》, 미신타파에 대한 지향은 우리 나라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고있던 외래침략자들과 그들의 앞잡이들에 대한 증오심과 결부되어있다.

형상창조 즉 인물설정과 성격형상에서 보게 되는 이 특징들은 유럽 여러 나라 계몽주의문학들과 구별된다.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의 형상적특징은 다음으로 새로운 형상수법을 탐구하고 번역, 번안소설이라는 새로운 문학형태를 개척한것이다.

형상수법은 문학예술작품에서 형상창조에 리용되는 수법이다.

묘사수법, 구성수법, 표현수법 등이 여기에 포괄된다. 형상수법은 작품의 형식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내용의 형상적질을 보장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어떤 형상수

법에 의거하였는가에 따라 작품의 질과 특징, 양상, 문체, 형태가 규정된다.

례를 들어 소설가가 1인칭설화법과 정서적내면독백의 수법을 썼다면 작품은 서정성이 강한 1인칭소설로 될것이고 의인화와 상징의 수법을 위주로 했다면 우화소설로 될것이다.

유럽의 계몽주의문학에서는 봉건제도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문학예술작품을 통하여 사회여론에 적극적인 영향을 주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웠다. 계몽주의작가들은 봉건적인 신분제도와 종교적신비주의를 반대하고 자유, 평등의 사상과 인간리성의 힘을 강조하면서 부패타락한 봉건지배층의 생활을 폭로풍자하였으며 농민과 도시소자산계층 등 평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그들의 불행과 고통을 동정하였다.

이로부터 계몽주의문학에서는 예술적형식에서도 고전주의의 낡은 도식적인 규범과 틀을 마스고 문학형식의 자유로운 탐구를 주장하였다.

영국의 대니얼 디포우, 조너선 스위프트, 헨리 필딩, 프랑스의 디드로, 도이칠란드의 레싱을 비롯한 유럽계몽주의자들은 고전주의의 도식적인 규범을 반대하고 계몽주의리상 실현에 부합되는 새로운 사실주의적묘사수법과 문학형태를 탐구하였다. 그 과정에 철학적인 소설, 환상소설, 정론적이며 풍자적인 산문, 룰리도덕적인 희곡 등을 새로 발전시켰다.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에서도 종래의 중세문학이 남겨놓은 중세기적인 낡은 형상수법을 마스고 계몽을 위한 새로운 구성형식과 문학형태를 적극 탐구활용하는데로 지향하였다. 계몽기작자들은 우리 나라 중세문학에 남아있는 《고진감래》식 구성형식과 일인일대기적인 인물형상수법, 한문식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언어묘사, 도술적인 계기와 비현실적이며 환상적인 무대설정과 같은 제한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신소설의 이야기줄거리에서 중세소설의 평면성을 극복하고 립체성을 보장하였으며 고티나는 이야기식이 아니라 생활과 성격에 대한 묘사를 강화하고 언문일치에로 접근한 문체의 확립, 한문식표현의 현저한 극복과 구두어적표현의 증대, 새로운 대화형식의 창조등이 그 구체적표현이다.

문학형태에서 소설의 개작본과 번역, 번안소설이 적극 탐구개척되었다.

번안소설은 자기 나라 인민들을 교육계몽할 목적으로 다른 나라 소설들을 시대적요구에 맞게 번역개작한 소설이다. 19세기말~20세기초에 애국문화운동이 힘차게 벌어지게 되면서 나라의 독립과 문명개화를 반영한 신소설들과 함께 외국소설을 번역개작하여 소개한 번안소설이 나오게 되었다.

번안소설은 다른 나라 소설작품을 그대로 번역한 번역소설과는 달리 그것을 작가의 사상미학적의도에 따라 자기 나라의 실정과 시대적요구에 맞게 일정하게 개작한것이 특징이다. 즉 번안소설은 원작의 주제사상, 형상체계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사람의 이름, 사회력사적배경 등을 자기 나라의것으로 바꾸기도 한다.

《서서건국지》(1907년, 박은식역), 《철세계》(1897년, 리해조역) 등이 번안소설의 례로 된다. 번안소설과 번역소설은 차이를 가지고있지만 당시로서는 그것이 다같이 교양적목적과 계몽적요구에 맞게 선택되고 번역, 소개, 개작되었던것만큼 이 부류에 속하는 소설들을 몰밀어 번안소설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당시의 작가들과 문필가들은 일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과 애국문화계몽운동이 활발히 벌어진 사회정치정세와 시대적요구에 대답하려는 의도밑에 독립사상을 고

취하며 계몽적인 성격을 띤 다른 나라의 작품들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내놓았으므로 그 작품들은 제한적이기는 하나 일정한 의의를 가지었다.

3. 결 론

우리 나라에서 계몽기문학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이 외세에 의하여 무참히 유린되고 있던 당시의 사회력사적현실을 반영하여 발생발전하였으며 그에 따르는 주제사상적내용과 형상적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의 계몽기문학은 나라의 구체적인 사회현실적요구로부터 반제반봉건적인 《독립자주》의 리념을 주요주제사상적내용의 하나로 취급하고있다.

예술적형상의 견지에서 볼 때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에서는 반일의병, 애국렬사, 애국적지식인 인물형상을 창조하고 그들의 성격형상에서 반침략애국사상, 반일사상과 민족적 독립사상을 강조하고있으며 친일매국노들의 형상을 통하여 외세에 아부아첨하는자들을 신랄히 규탄하였으며 애국적지식인형상에 우리 나라의 근대적사회발전에 대한 지향을 체현시키고있는것이 특징적이다.

인물형상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에서 창작된 인물형상들은 당시 현실의 구체적인 생활에서 살아움직이는 보통의 인물들로 형상되고있다.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은 종래의 중세문학이 남겨놓은 중세기적인 낡은 형상수법을 마스고 계몽을 위한 새로운 구성형식과 문학형태를 적극 탐구활용하는데로 지향하였다.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에서 나타나는 형상적특징은 조선계몽기문학의 발생이 단순히 외국문학의 《이식》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나라 문학발전의 합법칙적결과의 산물이며 자체의 독자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 나라 계몽기문학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민족문화유산을 보다 더 풍부히 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에게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주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계몽기문학, 근대문학, 반침략애국문학, 비교문학